

AI·빅데이터 포럼

[AI·빅데이터 얼라이언스 발족식 및 토론회]



Review Report

1 'AI·빅데이터 포럼' 행사 개요

행사 개요

주 제 한국판 뉴딜: AI·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데이터경제 가속화 방안
일 시 2020년 6월 23일(화) 10:00 ~ 12:00 **장 소**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2층)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두관·(사)국가경영연구원

세부 일정

구분	시간	주요내용	비고
	10:00~10:05	개회사	정해방 국가경영연구원 이사장
[1부] 민간주도 'AI·빅데이터 얼라이언스' 발족식	10:05~10:10	인사 말씀	윤영민 AI·빅데이터 얼라이언스 운영위원장
	10:10~10:15	축사	김두관 국회의원
	10:15~10:20	내빈 소개	사회자
	10:20~10:30 (10')	Break Time	
[2부] AI·빅데이터 토론회	10:30~10:40	모두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해상 국가경영연구원 원장 최인수 마크로밀엠브레인 대표
	10:40~11:50	D.N.A.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과 민간 간 협력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데이터 개발 및 활용 방안 공공-민간 데이터 간 융·복합 방안 공공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방안 관련 규제 완화 추진 방안 등
		민간기업 간 협업을 통한 데이터 산업 성장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간 보유 데이터 융·복합 활용 방안 스타트업 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내실화 방안 등
	11:50~11:55	마무리 말씀	윤영민 운영위원장
	11:55~12:00	폐회사	김두관 국회의원

2

주요 발제 내용

#1.D.N.A.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과 민간 간 협력 방안

공공·민간 협력체계 필요성

■ 양질의 공공 빅데이터 인프라 제공 필요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ICT와 비정형 빅데이터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공의 빅데이터 인프라 필요
- 양질의 공공 빅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는 기반 정비
- 빅데이터 제반 마련을 통해 국가 개입 없이도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 공유 및 융·복합적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협력체계의 목적은 '신성장동력 기반 구축'

- 공공과 민간의 정형 정보와 비정형 정보의 융·복합을 통해, ICT 및 빅데이터 하드웨어 (HW)와 소프트웨어 (SW) 원천기술 개발
- 이에 따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하는데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목적을 둠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1 국가적 차원의 빅데이터 표준화 추진 및 관리

- 데이터 별 기준, 입력 체계 등이 상이하여 공공 상호 간은 물론, 공공과 민간, 정형 정보와 비정형 정보 간 융·복합 및 연계 활용 어려움
- 국가적 차원의 '정보표준화위원회 (가칭)' 설치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정보 연계성, 상충성,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보 표준화 체계 구축 필요

2 양질의 정보 생산 및 지속가능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 빅데이터 제공 및 공유의 관건은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해를 금전적으로 조정해주는 장치로, 유료 체계 확립 필요
- 정보생산자의 책임성과 지속가능한 양질의 정보가 관리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제공받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한 기술과 상품에서 수익 발생 시, 일정 비율 생산자에게 귀속되는 형태의 체계 구축

3 ICT 및 빅데이터에 기반한 하드웨어 (HW)와 소프트웨어 (SW)의 공공 부문 소비시장 조성

- 민간이 개발한 ICT 및 빅데이터 기반의 HW/SW를 공공에서 구입·사용하여 빅데이터 기술의 소비시장을 조성함으로써, 민간이 빅데이터 관련 기술 경쟁력을 배양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시장 환경 마련
- ICT 및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소비시장 활성화는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일자리 창출효과를 수반하는 전·후방 파급효과가 큼

4 ICT와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발

- ICT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공공서비스 개발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및 ICT·빅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

5 공공 빅데이터 생성 및 활용 관련 제도 기반 합리화

- 개인정보 보호 기술 고도화를 통한 원활한 데이터 이용 환경 조성 및 제도 리모델링을 통한 다양한 공공 빅데이터 생성 체계 구축
- 공공정책 및 민간 상품 개발 정보가 복합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형태의 제도 리모델링 추진이 필요하며, 개별 행정업무 전산망을 재정비하여 제도 간 정보 불일치 및 유사 정보 중복 문제 해소 필요

2 주요 발제 내용

#2. 민간기업 간 협업을 통한 데이터 산업 성장 방안

한국판 뉴딜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성과 수혜가 국민에게 분배되지 못하는 한계 발생

플랫폼 기반 거대기업의 고용 효과 미비

D.N.A. 산업 소수의 대기업 독점으로 인한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회 상실

노동자의 Gig Economy 편입 가속화

데이터 독점 및 사회적 자원의 집중, 양질의 일자리 편중 등

플랫폼 충성도에 기반한 新 독점 경제체제 등장

4차 산업혁명 분야 플랫폼 공룡 기업

'스타트업+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新 대공황 우려

한국판 뉴딜 로드맵 설계 안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

- 한국형 뉴딜 핵심 4대 인프라 구축에 정부 주도 투자 필요

자원 배분 및 가치 향상

- 배분과 공유 및 가치 향상을 위한 정부-민간-학계의 협업 필요
- 빅데이터 & AI 관련 기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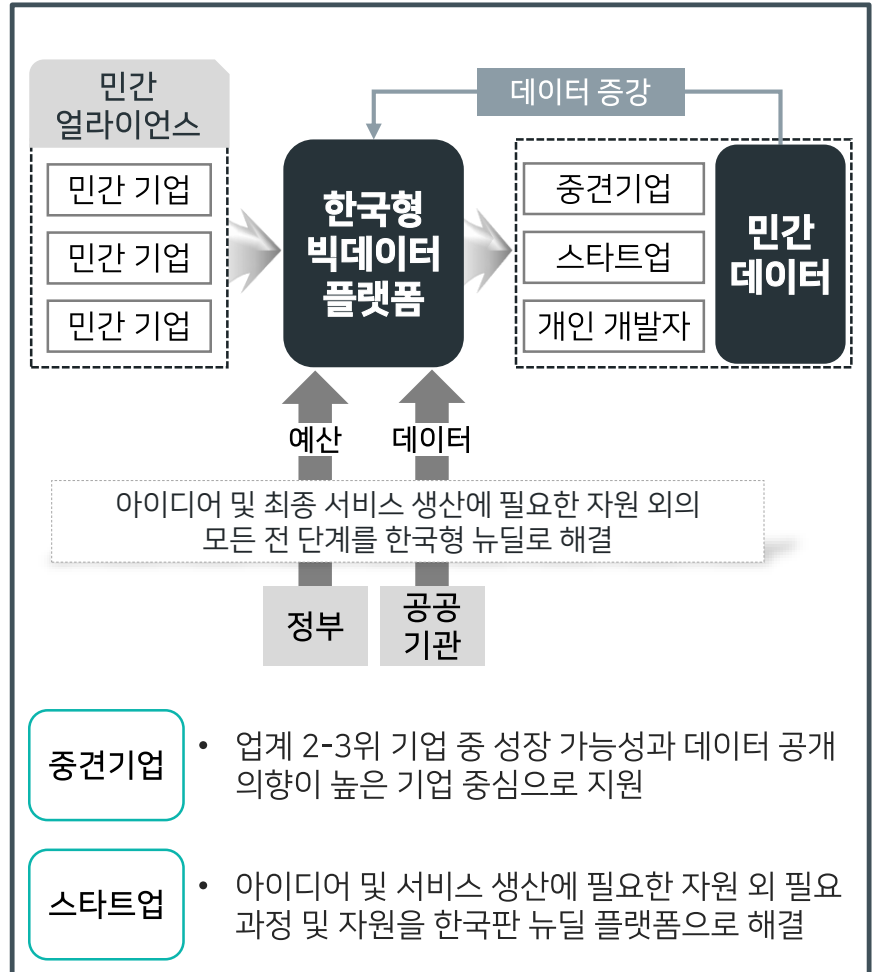
산업 경쟁력 향상

- Data, Information, Knowledge 이용 비용 절감 기술 및 제도
- 그린에너지의 가격 경쟁력과 지방의 생활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 및 기술

숙련 노동자 공급

- 한국판 뉴딜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도메인 전문 인력 양성 및 공급 필요

민관 협력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방안



3 주요 토의내용 요약

[제도개혁]

- 공공·민간 데이터 공개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의한 공개의 어려움이 존재
-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개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 및 인식, 정부 지원 R&D사업의 데이터 사유화 등의 문제 해결 필요

⇒ **원활한 데이터 공유를 위해 선제적으로 데이터 공개 관련 법·제도 개혁 필요**

[최종목표 정립]

- AI·빅데이터 얼라이언스 내부적으로 고용창출이라는 최종목표를 명확히 정립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 필요
- 보다 효과적인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중심이 되도록 하며,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학, 인문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견해 필요

⇒ **'고용창출'이라는 명확한 최종 목표 정립 및 구체적인 전략 수립 필요**

[성공모델 창출]

- 단기적으로 빠르게 가치 창출이 가능한 스몰데이터를 활용하여 성과를 만들어 냄으로써 Boom-Up 후 빅데이터 활용 사업으로 이어지는 전략 필요
- 선제적으로 현재 기회가 많은 분야에서 인큐베이팅 혹은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실제 성공 모델 발굴 필요

⇒ **단기 프로젝트를 통해 스타트업 창출 등의 성공사례 생산 필요**

[거버넌스 구축]

- 현재 정부 부처 별로 운영되는 데이터 관련 플랫폼의 경우, 모두 상이한 기준, 유형, 입력체계 등으로 활용에 어려움
- 특정 부처의 이익이 아닌 범국가적 차원의 운영 전략 및 이상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정부 부처 간, 부처와 공공기관 간, 공공기관 간 등 상호 협력 필요

⇒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관리를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도메인 선정]

- 바이오, 모빌리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AI·빅데이터 얼라이언스가 핵심적으로 다룰 5-10개의 도메인 (Domain) 선정 필요
- 데이터 가치 제고 및 양질의 데이터 생성을 위해 도메인 지식 (Domain Knowledge)을 가진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

⇒ **국민 생활과 밀접한 'AI·빅데이터 얼라이언스'의 핵심 도메인 선정 필요**

[공공데이터 정형화 및 개방]

-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 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공유 목적의 데이터 표준화 작업 시행 필요
- 공공의 양질의 데이터를 위해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 지자체의 원시 데이터 선공개가 필요하며, 먼저 공개된 데이터가 있어야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가치 제고가 가능

⇒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작업 및 공공데이터의 선공개 필요**

별첨 1 세부 발언 내용 (1/3)

#1. 제도개혁

A 교수
(자문위원)

- 법·제도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는 환경(의지) 조성 필요
 - 개인정보 등의 현실적인 책임 문제로 인한 공개의 어려움이 존재함으로 법·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공공데이터가 선제적으로 공개되도록 환경 조성이 필요 (外 한국도로공사 김홍철 사무국장)

B 교수
(자문위원)

- 정부 부처 제안 시 구체적인 제도 및 정책사업 제시 필요
 -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개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등의 구체적인 제도 방안 마련 및 예산 배정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사업(안) 제시 필요

C 임원
(얼라이언스 참여사)

- 분야별 분절된 데이터 간의 연결을 위한 제도 장치 마련 필요
 - 현재 기업(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의 경우 각 분야 별 분절된 데이터로 데이터 간의 연계성을 찾기 어려워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는 상황임
 - 분절된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상황이 마련되지 않으면 데이터 축적 및 표준화 어려움
 - 데이터의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공개 등에 대한 법적인 문제 해결이 선제되어야 함

D 임원
(공공기관)

- 공공데이터 공개에 대해 '공공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다' 라는 내부 인식 변화 필요

"각 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및 연구 과제 (R&D 과제)의 데이터 공유 의무화 제도 개설 필요"

- 공공기관은 공개에 대한 의지가 없으며 단순 건수 채우기 형식 수준으로, 제도적으로 일정 정도의 공개 수준을 정하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마련 필요

운영위원장



#2. 거버넌스 구축

C 임원
(얼라이언스 참여사)

- 하나의 부처가 하나의 플랫폼 만을 구축·운영 하거나 민간기업이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 필요
 - 현재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는 데이터 관련 플랫폼이 난무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기준과 운영방식, 데이터 유형이 상이하여 데이터 활용 시 재가공이 필요하게 되어 불필요한 작업이 소요되고, 데이터 활용도도 하락함.

E 담당
(공공기관)

- 정부 부처 간의 데이터 연계 및 협업 필요
 - 동일 분야 내에서도 연계되어 있는 정부 부처들 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부처 간의 협력하는 환경 조성 필요

F 임원
(공공기관)

- 데이터 수집, 관리 등의 총괄 운영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필요

"빅데이터 플랫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처의 선정 및 운영 전략 수립 필요"

- 기획재정부 중심의 운영이 되도록 외부에서의 환경 조성 필요
- 특정 부처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국가차원의 운영 전략이 필요하며, 가장 이상적인 거버넌스 도출을 위한 고민 필요

운영위원장



별첨 1 세부 발언 내용 (2/3)

#3. 목표 명확화

G 교수
(자문위원)

• 현재 교수 중심의 R&D 과제 중 일부를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R&D가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여 **스타트업 창출 활성화**

H 위원
(자문위원)

• 전체적인 데이터 기술 프로세스 내에서 단계별 **필요 인력 분류 및 이와 관련되는 제도 개혁 및 정책사업 개발 필요**
ex) 전처리 및 시각화 등의 작업 인력 필요

I 위원
(자문위원)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지원과 법적인 혜택을 주어 **인력을 양성하게 하는 등 데이터를 Information, Knowledge로 만들어 낼 기관이 많이 생기도록 해야 함**

C 임원
(얼라이언스 참여사)

•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 부문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등 매우 중요한 부문으로 **정부지원을 통한 데이터 분석 전문인력양성 필요**

J 교수
(외부 전문가)

•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사업)에 대한 견해를 가진 인문사회학자들의 참여가 필요**

“ AI·빅데이터 얼라이언스의 최종 목표로써 '고용창출' 명확화·공감대 필요”

- 얼라이언스의 최종 목표를 '고용창출'로 명확하게 정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 필요
- 고용창출 관점에서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벤처기업 중심

운영위원장



#4. Domain 선정

J 교수
(외부 전문가)

• 다양한 **Domain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
- 데이터에 대한 쓰임에 있어 최종 의사결정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최종 의사결정 시는 물론이고 최초 데이터 생성 시에도 데이터에 대한 **Domain Knowledge**가 있어야만 올바른 의사결정,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생성이 가능

“얼라이언스 내에서 핸들링이 가능한 수준의 핵심 Domain 선정 필요”

- 바이오, 모빌리티 등 국민 생활 밀접형의 5-10개 분야 선정

운영위원장



#5. 단기적 성공모델 창출

K 위원
(자문위원)

• 기회가 있는 분야의 관련 데이터(공공·민간)를 수집하고 공개하여 스타트업 창출 및 기존 산업의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공 사례 창출이 선제적으로 필요**

J 교수
(외부 전문가)

• 단기적으로 빠르게 가치를 낼 수 있는 **스몰데이터를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며 Boom-Up하는 전략 필요**

“정책사업 개발 시 참고 가능한 Reference로 성공사례 (성공모델) 정리 및 발굴 필요”

운영위원장



별첨 1 세부 발언 내용 (3/3)

#6. 데이터 정형화

L 대표 (얼라이언스 참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데이터의 표준화·정형화 작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지자체 별 각각 데이터 형태 및 코드 등이 각기 달라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커 공공데이터의 정형화(표준화) 작업 시급 (外 한국도로공사 박경호 단장, 김홍철 사무국장)
D 임원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별 공유 목적의 데이터 내용 및 형식 재설계 필요
F 임원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의 연계성, 상충성, 중복성을 고려한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프레임을 구축하고 각 기관 별 데이터 정제를 통해 민간 활용 시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 될 수 있도록 함

#7. 데이터 공개


E 담당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시데이터 공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양질의 데이터 공개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에서는 양질의 데이터라 하면 정제된 데이터라는 인식으로 정제하여 공개하려고만 하는 경향이 있음 - 빅데이터 플랫폼에는 정제되지 않은 원시데이터가 필요하므로 '양질의 데이터' 라는 단어보다는 원시데이터 공개 유도 필요
C 임원 (얼라이언스 참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데이터 공개가 선행되어야 양질의 데이터로의 변형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데이터의 가치는 시장에서 판단되는 문제로 정부의 데이터 공개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이 후의 데이터 개선에 대한 피드백과 양질의 데이터로의 발전이 일어날 수 있음


#8. 기타

H 위원 (자문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픈 소스 형태의 데이터 공유 방식의 운영 방법 고민 필요
C 임원 (얼라이언스 참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몰데이터에 대한 관심 필요 및 스몰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생성 방안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인구주택총조사 시 조사원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모아온 다양한 스몰데이터가 존재하나 현재의 통계청 데이터들과의 결합이 되지 못하고 전혀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 산재되어있는 스몰데이터에 대한 관심도를 갖고 이를 활용하여 빅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M 임원 (얼라이언스 참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통역해주는 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한 데이터는 많으나 활용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안내 및 길라잡이를 해줄 수 있는 일종의 통역관 역할의 인력 필요
N 대표 (얼라이언스 참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데이터 플랫폼들과 'AI·빅데이터 얼라이언스'가 그리는 빅데이터 플랫폼의 분명한 차별성 필요 (外 비글(트랭글 GPS) 장치국 대표)

"연구기관 혹은 대학, 지자체 등이 자체적으로 보유 중인 스몰데이터의 민간 공급 방안 마련 필요"

- 공공이 가지고 있는 스몰데이터를 공급하여 학계 등에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정치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

별첨 2 참석자 명단 (1/2)

(성명 가나다순)

직책	성명	경력
주최	김두관	제21대 국회의원 (경남 양산시을 / 더불어민주당) 前 제20대 국회의원 (경기 김포시갑 / 더불어민주당) 前 제20대 국회 전·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AI·빅데이터 얼라이언스	운영위원장	운영민 한양대 정보사회학과 명예교수 前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장 前(사)한국데이터사이언스학회 학회장 前국가오픈데이터포럼 공동의장 前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위원회 전자정부특별위원회 특별위원
	운영부위원장	김현석 (사)국가경영연구원 상임이사/㈜테라컨설팅그룹 대표이사 前한양대학교 연구교수 前기획예산위원회/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팀장
	자문위원 (공공 협력)	권해상 (사)국가경영연구원 원장 前한국자금중개 사장 前OECD대표부 공사 前청와대 혁신관리비서관
		반장식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前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 前기획예산처 차관 前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서강미래기술원 원장
		양근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前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부원장 前한국철도기술연구원 녹색교통물류시스템공학연구소 소장 前기획예산처 교통정책조사관
정해방 (사)국가경영연구원 이사장 前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前기획예산처 차관 前국민경제자문회의 정책분석실장		

(성명 가나다순)

직책	성명	경력	
AI·빅데이터 얼라이언스	자문위원 (공공 협력)	채미옥 국토교통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위원 前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원장 前국토연구원 문화국토전략센터 센터장	
	자문위원 (데이터 활용)	고준호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인태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김민중	명지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명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스마트모빌리티연구센터장
		김형진	한국경제신문사 경제교육연구소 팀장
		박지만	스마트모빌리티연구센터 수석연구원 前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 부교수
		서원호	한양대학교 교통물류공학과 교수
		이승종	(주)네무스텍 대표이사 前모코코 모바일사업본부 본부장 前삼성전자 소프트웨어센터 전임연구원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정책연구팀장 (교통공학 박사)
	황윤익	(주)SOCAR 사업개발본부장	
	운영사무국 간사	박호철 (기술부문)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스마트모빌리티연구센터 부센터장	
		임형주 (운영부문) (주)테라컨설팅그룹 사업개발본부장	

별첨 2 참석자 명단 (2/2)

민간기업

(기업명 가나다순)

기업명	성명	회사 개요
더아이엠씨	전채남 대표이사	• 웹, SNS 데이터의 수집 및 정형화, 분석 등을 통해 패션, 지역경제 등 다양한 산업분야 빅데이터 분석 기업
	정승재 주임연구원	
마크로밀 엠브레인	최인수 대표이사	• 1,100만 글로벌 리서치 패널, IT 솔루션 기반의 종합 리서치기업
	김성진 이사	
비글 (트랭글GPS)	장치국 대표이사	• 아웃도어 스포츠 유저들을 위한 운동 관련 서비스 및 콘텐츠를 제공하는 '트랭글 GPS'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국내 최대의 아웃도어 포털 커뮤니티 서비스 기업
스튜디오 갈릴레이	조광순 대표이사	• 도시·교통, 부동산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 기술을 개발하며 모빌리티 사업의 발굴 및 기획,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아이나비시스템즈 (팅크웨어)	성득영 대표이사	• 위치기반서비스 (LBS), 내비게이션, 전자지도, 모빌리티 빅데이터 및 플랫폼, 차량용 블랙박스, 태블릿 PC 제품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솔루션 서비스 기업
	진형민 그룹장	
알라딘시스템	고경남 대표이사	• 지도 제작, 공간정보구축, DB구축 및 소프트웨어 개발
위즈베이스 (엘로테일)	박태욱 대표이사	• Expert Consulting Service, IT Infra Solution 공급, Pro-active Expert Service 등의 토털 컨설팅 기업
인바디	최창은 부사장	• '체성분검사=인바디검사'로 불리며 세계 1위이자 체성분분석의 표준으로 신뢰 받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최찬 파트장	

(기업명 가나다순)

기업명	성명	회사 개요
인바디	최창은 부사장	• '체성분검사=인바디검사'로 불리며 세계 1위이자 체성분분석의 표준으로 신뢰 받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최찬 파트장	
지바이크	윤종수 대표이사	• 지쿠터 (공유 스쿠터)와 지바이크 (공유자전거)를 서비스하는 대한민국 대표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
칼라세븐	김남균 대표이사	• PAMS 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메디컬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 기업
K-Weather	김동식 대표이사	• 데이터를 통해 공간과 날씨, 공기환경을 선도하고, 고객의 공간을 케어하는 종합 환경기업
	윤현집 본부장	

공공기관

(기관명 가나다순)

기관명	성명	부서
도로교통공단	윤진수 처장	• 인프라 연구처
	홍경식 책임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박경호 단장	• 국가교통빅데이터구축추진단
	김홍철 사무국장	
	문정원 차장	
한국국토정보공사	김택진 본부장	• 공간정보본부
	강장화 부장	

별첨 3 AI·빅데이터 포럼 관련 보도기사

AI·빅데이터 협의체 출범, "디지털 뉴딜의 핵심 '데이터 댐'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달려"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정책을 지원할 민간 주도의 협의체 '인공지능(AI)·빅데이터 얼라이언스'가 23일 발족했다.

... (중략) ...

이날 발족식에서 운영민 교수는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댐' 구축 사업의 성공 여부는 공공과 민간 간 협력관계를 토대로 한 수요자 관점에서의 사업 추진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께서 강조한 '데이터 댐'은 데이터를 가두는 것이 아닌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모아 개방하는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하며, "데이터 뉴딜은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종 목표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 (중략) ...

이번 포럼을 공동주최하고 민간 중소·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AI·빅데이터 얼라이언스'는 정부 사업의 실질적인 성공을 위해선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구성됐다.

얼라이언스에는 더아이엠씨 등 민간 중소·벤처기업들이 참여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정관계 출신 인사와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을

맡는다. 얼라이언스는 참여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향후 개방될 공공데이터와의 융·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과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연다.

... (중략) ...

추후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한국판 뉴딜 정부 관계자 및 관련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공-민간 부문 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디지털조선일보 (2020.06.24)

한국판 뉴딜의 핵심 '데이터 댐'... "공공·민간 협력관계에 달려"다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댐'을 구축함에 있어 성공여부는 정부부처 간의 협력관계는 물론, 무엇보다 공공과 민간 간의 협력 관계를 토대로 한 '수요자 관점'에서의 사업 추진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과 국가경영 연구원의 공동주최로 23일 열린 'AI·빅데이터 포럼'에서 발족식을 연 'AI·빅데이터 얼라이언스'의 운영민 운영위원장(한양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이 강조한 말이다.

... (중략) ...

'AI·빅데이터 얼라이언스'는 다양한 분야의 정관계 출신

인사와 산·학·연의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민간 중소·벤처 기업들이 주축이 돼 구성된 순수 민간주도의 협의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AI·빅데이터 등 관련 정책에 대해 발전적 방향에서 자문 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 (중략) ...

'AI·빅데이터 얼라이언스' 발족식에 참석한 김두관 의원은 "특히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기반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혁신을 가속화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며 오늘 출범하는 'AI·빅데이터 얼라이언스'에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중략) ...

김현석 AI·빅데이터 얼라이언스 운영부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의 중착점은 결국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내는 것"이라며 "정부는 한국형 빅데이터 플랫폼을 주도할 거버넌스 체계를 조속히 구상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정책 및 예산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블로터앤미디어 (2020.06.24)

외 한국경제, 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포토기사) 등에 보도되었음